

全集출판의 수준 높은 '개인전집'

非문인·생존인물도 망라... 단행본 형태가 주류 이뤄

朴海鉉

문학평론가·중앙경제신문 기자

문학의 성장기에 걸쳐 잇달아 발간

1981년 가을, 절망과 분노로 뒤범벅이 된 좌절감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김수영전집」이 민음사에서 나왔다. 이 전집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정주·김춘수 등의 문학과 다른 입지에서 시를 쓰거나 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대부로 존재하고 있는 60년대의 시인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 전집은, 암울한 상황의 분위기와 김수영의 자기당대에 대한 정직한 고뇌가 주는 공감대로 인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시적 순결의 상징으로서 김수영의 이름을 거론하게 했고, 한동안 '김수영현상'이라고 이름 부를만한 문학적 현상을 유포함과 아울러 상업적 성공도 거두었다.

「김수영전집」의 출판이 지닌 의미는, 그러나 80년대초 문학의 정신적 풍토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80년대가 개인별 전집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감을 밝히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에 있어서 김소월·이상·김영랑·이육사·이상화·이장희·한용운·박목월·김종삼 등의 작고시인과 서정주·박두진·김춘수·김남조·고은 등 현역 시인들의 시전집이 등장했고 소설·평론 등의 문학의 장르에 걸쳐서 전집발간이 잇달아 추진된 것이다.

소설의 경우, 80년초 「최인훈전집」이 완간된 뒤 소설의 전체적인 부진에 영향을 받은듯 전집의 출간이 뜸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시대 문학의 거봉들인 염상섭·채만식·최서해 등의 전집이 거의 완성본이라고 부를 정도로 체계적인 편집을 통해 만들어졌다. 「염상섭전집」(전15권, 민음사), 「채만식전집」(전10권, 창작과비평사), 「최서해전집」(전2권, 문학과지성사) 등의 출간은 문학사적 자료의 결집이라는 점과 함께 전집출판의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경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전집들은 수록작품과 판본의 선정,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규칙결정, 작가연보와 해설 등에 걸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작고문인 전집의 제작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전집의 제작방향은 87년 정부의 해금조치로 쏟아져 나온 이른바 남·월북작가 개인전집의 제작과 독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금 이후 나온 전집은 여러 판본이 난무하

작고인물과 생존인물,

문인과 非문인을 막론한 개인전집의

활발한 간행은 80년대 들어

부쩍 두드러진 출판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해당 인물의 업적이

충분히 전집으로 묶일 만하다는

문화적 판단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물제작을

감당할 만한 출판계의 역량 성숙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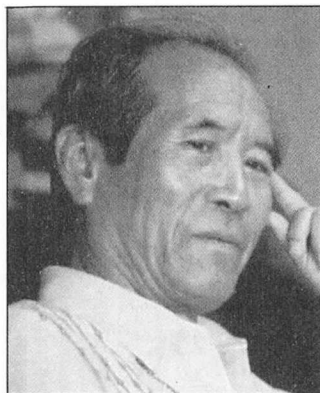
힘입은 바 크다.

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것들로 「정지용전집」(전2권, 민음사), 「김기림전집」(전6권, 심설당), 「이기영전집」(전12권 예정, 풀빛), 「박태원전집」(전20권 예정, 깊은샘), 「박노갑전집」(전3권, 깊은샘) 등이 있고,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식민지시대 카프문학의 이론가인 팔봉 김기진의 평론과 소설 등 모든 저작을 모은 「김팔봉전집」(전6권, 문학과지성사)이 완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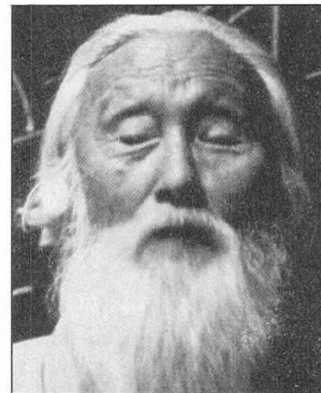
단행본 형태의 전집 새롭게 시도돼

이와 함께 생존문인의 전집으로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전집이 「토지」 제4부를 펴내는 등 속간됐으며, 「황순원전집」(전10권, 문학과지성사), 「고은전집」(전50권 예정, 청하), 「이호철전집」(전12권 예정, 청계연구소)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집들은 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원로와 중진문인에 대한 문화적 예우이면서 동시에 현단계 문학의 등대를 세우려는 문단과 출판계의 지향점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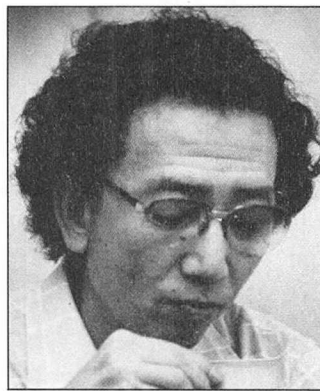
생존문인의 전집출간은 그러나 찬반양론의 와중에 늘 서 있다. 우선 반대의 입장은 생존작가가 어떻게 전집을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일본출판사의 상업주의를 흉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생존문인전집의 출간에 있어서 70년대 후반부터 전집이 단행본형태로 나오다가 출판사의 사정으로 공중분해된 이청준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무책임한 생존문인의 전집출간은 작가와 독자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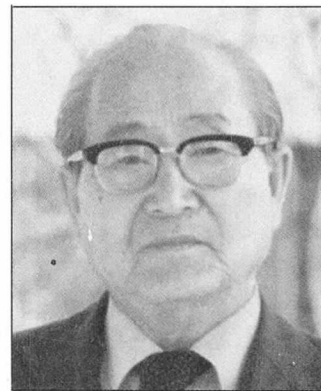
황순원



함석헌



최인훈



김성식

를 기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생존문인의 전집을 옹호하는 입장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문학평론가 김현교수가 지난 77년에 쓴 산문 「최인훈전집에 대하여」가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는 당시 식민지시대의 주요작가들의 전집도 없는 상황에서 생존문인의 전집이 나왔다는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토대로 "생존작가의 전집은, 그 작가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늘 수정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중요한 작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전집을 내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행본형식의 편집은 더 나아가서 작가와 출판사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서 출판사 중심으로 문학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존작가의 전집이 작고문인의 그것과 달리 단행본형식이라는 것과 관련, "단행본형식의 전집은 두가지 압력에서 자유롭다. 하나는 제작비용의 압력이며, 또 하나는 외관조직의 압력이다. 그 두가지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전집류의 기획은 그 폭을

한없이 넓힐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非문인 전집 출간도 활기 보여

80년대는 이밖에 전집의 대명사인 문학 이외의 분야에서 개인전집이 눈에 두드러지게 늘어난 시대였다. 이와 관련해 87년 동아일보 11월3일자 「비문인전집출간 활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집은 소설가·시인 등 문인의 전유물처럼 생각돼 왔던 게 일반적이었다. 즉 전집하면 곧 문학전집만을 연상해왔다. 그러나 문인이 아니면서도 열심히 글을 쓰다 작고했거나 현재 활발하게 쓰고 있는 사람의 글을 모아 전집으로 꾸미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김성식전집」(전8권, 제3기회), 「함석헌전집」(전20권, 한길사), 「임석재전집」(전20권 예정, 평민사), 「김동길전집」(동광출판사) 등이 완간 내지는 발간중이며, 민음사에서 「이용희전집」, 「이승녕전집」 등이 일부분 나왔고 현재 「박중홍전집」이 준비중이다.

「김성식전집」은 지난 86년 타계한 저자가

출판기재단이 뽑은 89년도 '올해의 책'

金達鎭 「한국漢詩」 등 7종 선정

국내 서양사학계에 남긴 업적을 미발표유고를 포함, 총정리하는 것이고, 「함석헌전집」은 올해 타계한 저자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간행된 것인데 저자의 65년에 걸친 저작활동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리고 「임석재전집」은 민속학자인 저자가 전국을 돌며 채집한 설화와 민속학논문들을 모은 것으로 평북지방의 구전설화 180편을 모은 제1권을 비롯, 현재 4권까지 나와 있다.

이밖의 개인전집은 지난 85년 타계한 연극인 서항석의 희곡·평론·수필 등을 담은 「서항석전집」(하산출판사)과, 평생을 동요와 동시에 바친 윤석중의 동요집 10권, 동시집 2권, 동화집 4권, 동요동시해설집, 사진첩 17권 등 30권의 책과 악보집, 동요 195곡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8개로 구성된 「윤석중전집」(웅진출판사)이 80년대의 개인전집으로 손꼽힌다.

80년대 들어 개인전집의 출간이 활발한 이유로는, 우선 문학의 경우 식민지시대 주요 작가의 전집이 있어야 한다는 문단과 출판계의 오랜 숙원이 작용한데다가 때마침 정부의 남·월북작가 해금조치가 터져나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생존작가의 전집출간은 다소 상업적인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 작가의 작품을 따로 읽기보다는 전체로서 읽으려는 전문독자층이 두터워졌고 단행본형식의 판매 형태가 독자층의 욕구를 흡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문학 이외의 개인전집이 많이 나온 것은 해방 이후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 온 세대가 80년대를 생의 말년으로 삼게 됐고, 그들의 업적이 충분히 전집으로 묶일 만하다는 문화적 판단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그 명도가 높은 인물들의 전집을 출간하려는 출판사들이 문화적 사명감과 함께 그동안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을 이루어놓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로 삼을 만하다.

각 신문·통신·방송사의 출판기재단이 선정하는 89년도 '올해의 책'에 故김달진옹이 譯解한 「한국漢詩」(민음사) 등 7종이 뽑혔다.

올해로써 4회째인 '올해의 책' 선정은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사이에 발행된 도서를 대상으로 기획·내용·제작 및 출판문화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출판담당 기자 각 개인이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여러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투표로 결정됐다. 올해는 예년의 5종보다 2종을 늘려 7종을 뽑은 것이 특징.

출판기재단이 뽑은 89년도 '올해의 책'은 다음과 같다.

□ 한국漢詩(전3권)

고조선에서 조선조 말에 이르는 893명의 한시 1,800여수를 譯解했다. 수많은 한시 중에서 각계각층 인물들의 작품을 고루 수록하고자 노력했으며, 비교적 간결하면서 서정성이 풍부한 시들을 주로 뽑았다. 고조선~조선전기(1권), 조선중기~근대(2권), 여류시편(3권)으로 나눠 수록했다.

한문학자이자 시인인 金達鎭옹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유작.(민음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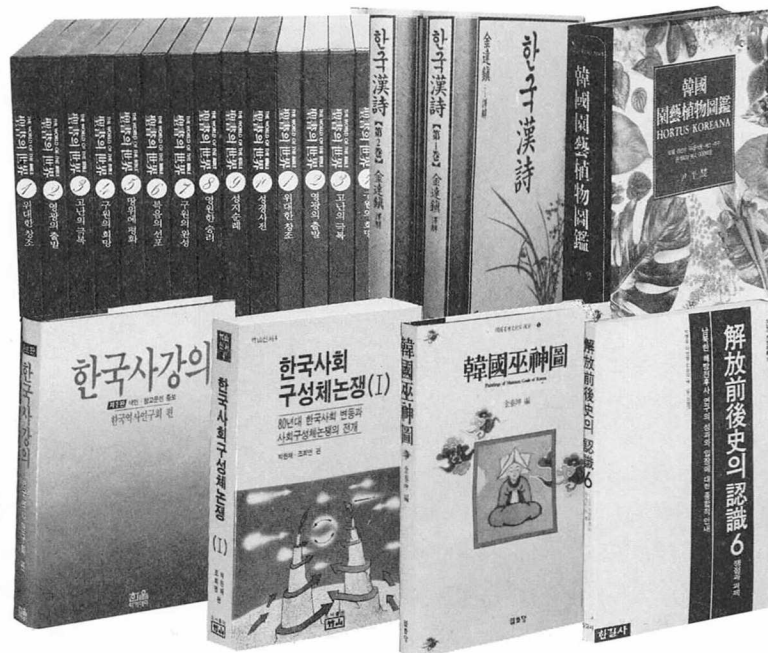
□ 韓國園藝植物圖鑑

尹平燮지음. 13년간 국내는 물론 미주와 유럽지역을 돌며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전개해온 저자의 학문적 열정이 집약된 역저.

특수부문의 저작물인 까닭에 시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종의 방대한 원예식물을 전면 원색도판으로 제작해낸 출판사측의 노고도 크게 돋보인다. 앞으로도 이같은 전문도감이 계속 출간되기를 기대하는 바램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지식산업사 펴냄)

□ 韓國巫神圖

민속학자 金泰坤교수가 자신이 20여년간 수집한 巫神圖 중에서 가려뽑은 130여점을 산신·서낭신·칠성·五方神將·三佛帝釋·關聖帝君 등 유형 별로 정리해 원색도판으로 실었다. 「무신도와 무속사고」(김태곤),



「圖像으로서의 무신도와 그 회화성」(박용숙) 두편의 글을 곁들여 무신도의 개념·종류·분포·역사·구도·상징 등을 설명했다.(열화당 펴냄)

□ 解放前後史의 認識(전6권)

해방전후사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현대사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책. 60여명의 관련학자들이 필자로 참가, 친일세력의 실상 및 해방 직후의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노력과 미군정에 의한 좌절, 그리고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의 과정 등을 생생하게 밝혀 놓았다.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책으로 평가된다.(한길사 펴냄)

□ 聖書의 世界(전24권)

기독교의 발상지인 성지 팔레스티나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역사의 현장을 성서의 맥을 따라 정리한 책. 성서에 담긴 메시지와 신학적 내용을 2,500여점의 사진과 240여명의 기독교학자들의 글로 엮었다.

출판사측의 편집·제작팀이 5차례에 걸쳐 현지 출장, 성지 뿐 아니라 기독교 명화도 직접 촬영해온 노고가 돋보이는 책으로서

기독교 중심의 서양문화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개신교편 10권, 가톨릭편 14권으로 구성.(동아출판사 펴냄)

□ 한국사강의

80년대 들어 일군의 신진소장학자들에 의해 왕성하게 전개된 민족·민중주체적 시각에서의 한국사 재해석작업의 구체적 성과가 잘 집약된 대중용 역사서. 특히 이 책은 새로운 역사관에 기초해 집필된 최초의 '대체교과서'로 현재 대학강단에서 한국사교재로 널리 사용중이며 일반인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의 집단연구로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도 특징.(한울 펴냄)

□ 한국사회구성체논쟁(전2권)

박헌체·조희연 엮음. '80년대 한국사회 변동과 사회구성체논쟁의 전개'란 부제가 시사하듯 80년대 후반 우리 학계의 핫이슈인 한국사회성격논쟁의 경과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구성체논쟁은 현대에 우리 사회운동의 실천적 쟁점들과 맞물려 있어 경향성을 띠기 쉬우므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체논쟁의 전반적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竹山 펴냄)